

생활속의 실명제

10

금융실명제가 '밤의 유흥문화'를 변화시켰다.

고급 룸살롱, 호화요정이 '사정 태풍'에 이은 '실명 한파'로 회생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다.

흥청망청 호기있게 '눈먼돈'을 쓰던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이들 유흥업소는 세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평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는 변태업소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신사동·논현동·역삼동의 일부 유흥업소는 무선전화기를 든 호객꾼 겸 감시조를 주변에 세워놓고 미리 연락을 하거나 사전에 약속한 암호를 알고 있는 손님만 출입시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가 짧거나, 서류봉투를 들고 있거나, 지나치게 정장을 한 손님은 단속에 나선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 끝났다'며 출입을 막는 것으로

밤 유흥가 찬서리가 내린다

손님 뚝 서울 4백여곳 문닫아...비밀업소는 되레 호황

전표를 끊었다가 중간 브로커에게 일정액을 수수료로 떼주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굴렸으나 이제는 할인(와리강)해주는 브로커도 사라졌다. 관례상 3개월 만기 어음을 통한 대리점과의 주류 거래도 사라지고 대신 현금을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

이에 서울 강남의 유흥접객업소 2백12곳 가운데 현재 휴·폐업한 업소는 30~40곳에 이른다. 올해 초 서울 시내에 허가된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카바레는 모두 1천6백11곳이었으나 현재는 4백여곳이 문을 닫았다.

문을 연 룸살롱도 매출액이 실명제 이전에 비해 50~80%나 줄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이다.

30여개에 가까운 방과 1백여명의 여자종업원을 두고 밤마다 성황을 이루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룸살롱은 전업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허가받은 업소가 이렇게 빈사지경인 반면 은밀한 영업을 하

아려졌다.

관계자들은 대중유흥업소, 허가를 받아 이렇게 심야비밀영업을 하는 업소는 강남에만 5백곳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대기업 중견과장인 김아무개(37)씨는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한달에 3~4차례씩 거래처사람들을 '강남'으로 모셨으나 이제는 한번도 어렵다"며 "회사쪽이 접대비를 50%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길우 기자